

[나와 《길림신문》]

© 김삼철

창간호를 받쳐들고 덩실덩실 춤추던 그날



저자 김삼철

1985년 봄의 일이었다. 길림신문사 리금남기자(후에 사장 겸 총편집)가 《길림신문》 창간호를 들고 장춘지역 유수현(현재 유수시)에 있는 연화조선총향(이하 '연화향') 정부에 찾아와 《길림신문》 창간 소식을 전하자 연화향정부는 삽시에 기쁨의 도가니로 들끓었다.

그날 저녁, 연화향정부 초대소에서 향당위와 향정부 책임일꾼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길림신문》 창간호 출간 축하파티가 열렸다.

특별한 준비가 없이 차린 음식상에는 토장국에 배추김치, 마른 두부찜, 모두부 등 소박한 음식들이 올랐지만 분위기는 그 어느 축제보다 못지 않게 화끈하였다.

리금남기자가 길림신문사 설립과 《길림신문》 창간호 출간 소식을 발표하자 모두들 우렁찬 박수로 축하를 보내었다. 그 얼마나 바라고 바라던 소망이었는가? 그 소망이 이루어졌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모두들 싱글벙글 웃으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연화향 군중들은 흑룡강성과 료녕성에 모두 조선문 성급 신문이 있는데 조선족이 제일 많은 길림성에 조선문으로 된 성급 신문이 없는 것을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였다. 나 역시 그랬다. 그래서 향정부 간부들은 더없이 기뻐하였다.

연화향은 설립된 지 40년에 가까워오지만 자기 행정구역에 우리 문자와 언어로 된 신문방송이 없어 아쉬움이 대단하였다. 그래서 나는 축하 파티에서 창간호 신문을 받쳐들고 흥겨운 노래소리에 맞추어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그날 저녁 밤 늦게 집에 돌아와 아내한테 《길림신문》 창간호 출간 소식을 알리고 잡자리에 들었지만 설레는 마음 때문에 침처럼 잠이 오지 않아 뜬눈으로 날을 밝혔다.

연화향은 당시 편벽한 시골인 데다 교통이 불편하다 보니 조선족 문화활동이 매우 적었다. 연변방송은 주파수가 낮아 들을 수 없고 《연변일보》는 거리가 너무 멀어 받아보지만 일주일이나 걸려 신문이 구문이 되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흑룡강조선어방송과 《흑룡강신문》을 주로 듣고 보았다. 그런데 필경 흑룡강성은 타성이 다 보니 감정과 호흡이 잘 통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세상을 알자면 속수무책으로 타성 신문과 방송이라도 보고 들어야 했다. 당시 연화향의 신문주변 부수와 청취률이 흑룡강성 그 어느 곳보다도 높아 흑룡강신문사와 흑룡강조선어방송국에서는 연화향을 중시하게 되었다. 연화향유선방송소에

서는 하루에 아침, 점심, 저녁 세차례 고음 방송으로 흑룡강조선어방송을 중계하였는데 전 향에 찌렁찌렁 울려 퍼졌다. 당시 흑룡강신문사와 흑룡강조선어방송국에서는 수시로 기자들이 취재를 내려왔고 연화향에 통신원 대오도 건립하였다.

당시 《흑룡강신문》은 연화향 로인 독보조의 유일한 구독 신문이었다. 그때 나는 연화향정부에서 교육보조원과 계획생육보조원 사업을 하였는데 통신원소조 책임은 내가 맡았다. 그래서 나는 이따금씩 보도기사와 통신기사 원고를 가지고 직접 할빈으로 다녔는데 연화향의 소식이 《흑룡강신문》과 흑룡강조선어방송에 자주 채용되었다.

나는 원래 연변에서 출생하여 20세 때부터 《연변일보》와 연변방송의 통신원으로 활약하다 보니 보도기사에 민감하였다. 당시 연화향에서는 집집마다 모두 흑룡강조선어방송을 들었는데 방송에서 연화향의 소식이 방송되면 모두들 기뻐하였고 이튿날이면 화제의 중심이 되었다. 그런 상황에서 본 지방의 길림신문사가 설립되고 창간호가 출간되었으니 어찌 기쁘지 않으랴! '가름에 단비' 같은 희소식이었다.

그때로부터 《길림신문》은 연화향 군중들의 길동무가 되어 지금까지 정치, 경제, 문화, 생산, 생활 등 많은 분야에서 고락을 같이해왔다. 연화향 군중들은 '자기의 신문이 있게 되어 뒤심이 든다'고 하면서 《길림신문》을 더욱 사랑하고 애독하였으며 본 지방의 생활, 생산 가운데서 용솟음쳐나온 아름다운 풍토인정을 《길림신문》에 소개하였다. 《길림신문》은 여러 마을 '로인화'의 독보물로도 극진히 사랑받아왔다.

그후 나는 자식들을 따라 연변에 돌아와서 생활하고 있는데 해마다 《길림신문》만은 잊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주문해보고 있다. 나는 수십년간 《길림신문》을 한장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받아보았다. 《길림신문》은 국내의 소식들과 사회의 이모저모, 나아가 절기에 앞서 농촌의 농사 준비와 형세, 농작물 자람새 등을 제때에 보도하여 광범한 농민들의 친근한 벗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다. 그리고 《길림신문》은 독자들의 길동무로, 백성들의 대변인으로 되기에 손색이 없는바 항상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2015년 7월 16일, 중공중앙 총서기 습근평동지가 연변을 시찰하였는데 나는 습근평 총서기의 연변 시찰 소식과 사진을 실은 7월 18일자 《길림신문》을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다. 2017년에 《길림신문》 제 1회 '아름다운 추억' 수기 공모가 있었는데 내가 쓴 〈풍악정이〉, 〈땅소나기〉, 〈자전거 타고 결혼〉, 〈엄마 아빠가 되던 날〉, 〈어머지향〉, 〈새집 짓던 나날〉 등 수십편이 채용되어 발표되었고 수상의 영예도 받아안았다. 나는 《길림신문》의 수기와 인물소개 등 중요 문장들을 오래오래 지금까지 소장하고 있다.

지금 나는 이미 86세 고령이지만 《길림신문》을 계속 주문해 보고 있으며 가끔씩 원고도 써서 투고하고 있다. 《길림신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는 마음이다.

[전망대]

막상막하 남통지운 꺾고 홈 7연승 장거 이루라!



제 13 라운드 연변팀과 광서평과팀 경기의 한 장면 / 김파기자

연변룡정커시안팀(이하 '연변팀')은 6월 29일 오후 3시에 연길시전민건강중심체육장에서 지난 해 슈퍼리그에서 강급한 남통지운 팀을 맞이하여 2025 화윤으로 중국축구 갑급리그 제 14 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된다.

2016년 1월에 설립된 남통지운 축구구락부는 연변팀이 을급리그에 올라오던 2018년에 갑급리그에 진출하고 또 연변팀이 갑급리그에 진출하던 2022년에 슈퍼리그에 승격, 2024년에 갑급리그에 강급되다 보니 연변팀과는 아직 교전 기록이 없다.

6월 25일에 업그레이드된 독일 이적시장 사이트에 따르면 남통지운팀의 몸값은 318만유로로 연변팀의 242만유로에 비해 다소 높다.

현재 5승 4무 4패로 19점을 기록, 리그 순위 6위를 차지하고 있는 남통지운은 상해가정, 불산남사, 심수청년인, 청도홍사, 광서평과 등 팀을 이기고 섬서연합, 소주동요, 중경동량룡, 석가장공부에 패하였다. 이런 상대들과의 연변팀 전적을 본다면 상해가정, 불산남사, 청도홍사에 비고 심수청년인, 광서평과, 섬서연합, 소주동요에 이겼으며 중경동량룡과 석가장공부에 패했다. 9개의 부동한 팀과의 경기에서 두 팀은 각각 15점씩 승점을 챙기면서 막상막하의 실력을 보여주었다.

여름철 이적시장 문이 열리면서 연변팀은 방향전 선수 비수데바 누네스와 청도해우에서 뛰던 왕자호를 영입하면서 수비선의 방패를 튼튼히 하고 공격선의 창끝을 예리하게 하였는데 앞으로의 경기에서 이들의 활약이 기대된다. 누네스는 중앙수비수로 매주객가, 대련인 등 슈퍼리그팀에서 활약하다가 지난해에 광서평과의 수비 핵심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 선수라면 왕자호는 슈퍼리그와 갑급리그 경향이 풍부한 공격형 미드필더로 지난 2023 시즌 제 7 라운드 제남홍주와 연변팀간의 경기에서 17분 만에 선제골을 작렬시키면서 연변축구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약삭바른 선수이다.

남통지운의 일본계 감독 시노다 요시노(篠田善之)는 4-2-3-1 진형을 능란하게 구사하는데 다양한 변화로 경기를 운영한다. 하지만 선수들의 실력 발휘는 기록이 크다. 지난 제 8 라운드 심수청년인과의 경기에서 5:0으로 대승을 거두고 제 9 라운드 경기에서 심수청년인과의 실력이 엇비슷한 섬서연합에는 2:3으로 패한 사실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제 13 라운드 경기에서는 강대한 료녕철인을 상대로 전반전에 2:0으로 앞섰다가 후반전에 2 골을 내주면서 무승부를 기록했는데 수중 작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진행된 경기라지만 선수들의 집중력이 매우 불완함을 읽을 수 있다.

홈 6연승으로 사기가 진작된 연변팀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욕망이 견결하고 감독진의 의지가 명확하다면, 그리고 연변축구팬들이 경기장에 구름처럼 모여와 한결같은 목소리로 연변팀을 응원한다면 연변팀이 남통지운을 꺾고 홈 7연승 장거를 이룩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보여진다. / 김태국기자



6월, 대학교는 한창 졸업 시즌

6월, 우리 성의 각 대학교는 잇달아 졸업 시즌을 맞이했다. 졸업생들은 너도나도 각자의 방식으로 이 소중한 순간을 기념하고 있다. 사진은 장춘중의약대학의 몇몇 졸업생들이 학위복을 입고 기념사진을 남기고 있는 장면이다

/ 길림일보



연변팀이 새로 영입한 비수데바 누네스(왼쪽)와 왕자호

图说 核心价值观

辛勤劳动 万事如意

富强民主文明和谐
自由平等公正法治
爱国敬业诚信友善

中宣部宣教局 中国文明网

河南舞阳 周松晓作